

최근 우리나라 수출 호조의 배경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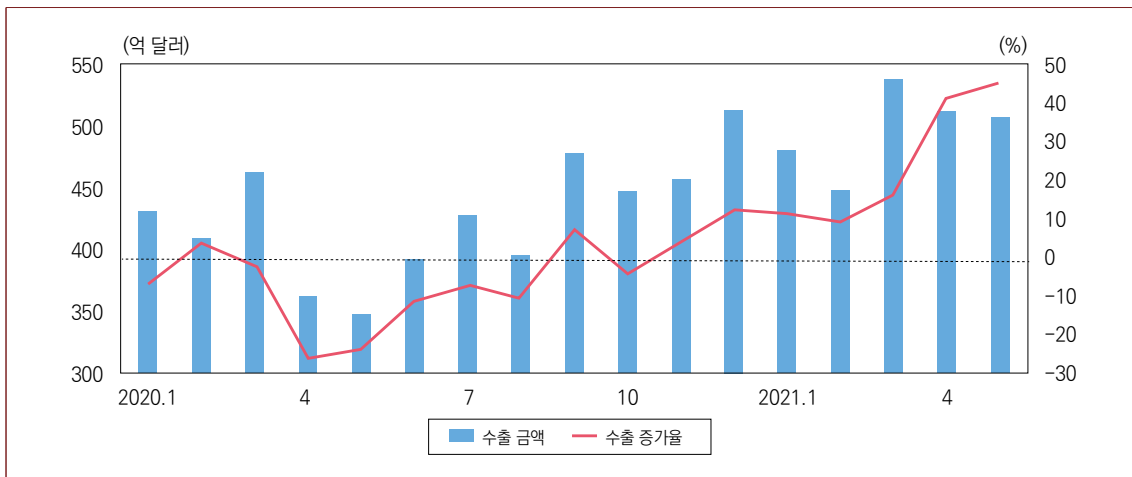
| 요약 |

-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
- 수출 호조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에 따른 반등 효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untact) 경제 활성화,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로 인한 반사적 이익, 신성장 품목의 성장 가시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경기침체로부터의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반등 효과의 기여가 크지만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
 -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의 수출이 대폭 증가
 - 최근 기후변화 방지와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 제고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차, LNG선 등 일부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반사적 이익 발생
 -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新)수출성장동력 품목이 크게 선전하며 수출 호조에 기여
- 올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전년의 기저효과, 비대면 수혜 품목 수요 둔화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수출 호조 지속을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편될 세계 교역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품목의 구조 전환 및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

- 5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2,484억 달러로 이는 연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의 동 기간 수출 실적(2,456억 달러)을 상회
 - 작년 수출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분기에는 -20%대로 급감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5.5%로 감소폭 축소
- 작년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품목별로 격차가 커지면서 산업 간 수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수출이 회복세
 - 작년에는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반도체, 컴퓨터 등 IT 관련 품목이 선전을 지속한 반면, 석유제품·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감소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유가 급락으로 크게 부진
 -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기계, 철강 등 전통 산업도 작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고, 작년에 크게 부진하였던 석유제품·석유화학도 올 들어 1분기 상승 전환
- 올해 1~5월 수출 증가분에 대한 품목별 기여율¹⁾을 살펴보면, 모든 품목이 양(+)의 값으로 분석
 -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상위 3개 품목의 수출 증가 기여율이 전체 수출 증가분의 40% 이상으로 최근 수출 호조를 주도

〈그림 1〉 최근 수출금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5월 실적은 잠정치.

1) 기여율 = $\left(\frac{x_t^i - x_{t-1}^i}{X_t - X_{t-1}} \right) \times 100\%$ (X_t =t기 총수출, x_t^i =t기 i품목 수출)

〈표 1〉 주력 품목별 수출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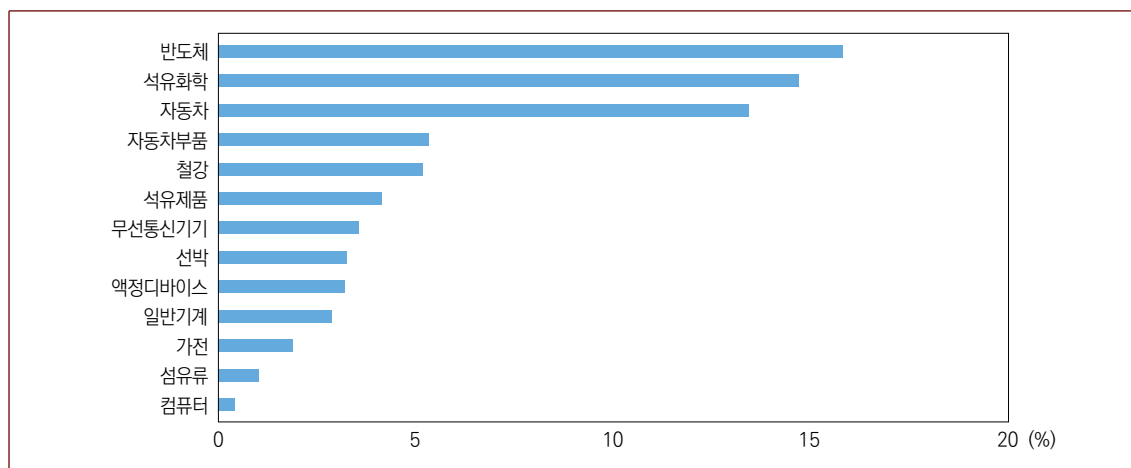
	2020					2021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5월	1~5월
반도체	5.6	0.6	-3.0	6.9	18.7	14.0	24.5	19.2
컴퓨터	57.2	71.1	89.8	82.4	8.5	2.8	7.5	3.7
가전	0.5	-6.2	-26.2	16.4	18.9	15.7	89.3	36.1
선박	-2.0	9.8	-30.6	-8.2	32.1	28.2	-14.9	18.2
무선통신기기	-6.4	-1.3	-22.7	-14.4	11.8	21.6	41.4	34.9
석유류	-13.3	-2.2	-34.8	-7.6	-6.5	-8.4	57.5	10.7
액정디바이스	-12.3	-20.7	-28.5	-17.7	17.8	16.3	38.7	24.9
자동차부품	-17.3	-2.5	-54.2	-15.7	3.8	5.6	182.5	35.1
철강	-14.4	-11.5	-26.7	-12.6	-6.5	7.6	62.9	22.4
일반기계	-8.8	-0.2	-18.8	-11.0	-5.1	-1.1	25.9	6.8
자동차	-13.1	-11.6	-41.5	1.6	1.1	31.5	93.7	47.5
석유화학	-16.4	-13.4	-27.8	-16.5	-7.7	26.7	94.8	47.6
석유제품	-40.6	-12.6	-59.2	-43.8	-44.7	-16.6	164.1	17.6

자료: 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 5월 실적은 잠정치.

〈그림 2〉 13대 주력 품목별 수출 증가 기여율(1~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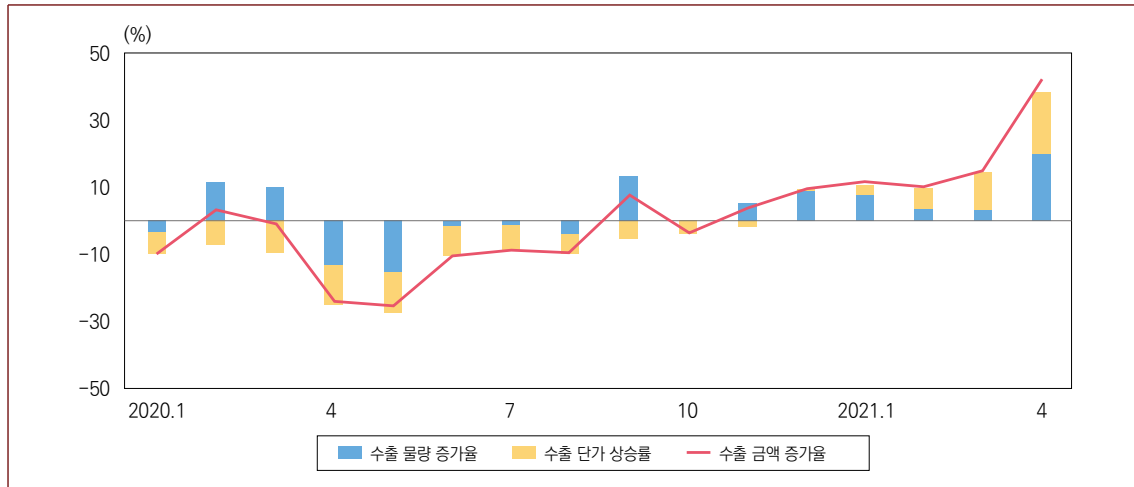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주: 5월 실적은 잠정치.

- 세계 경기 회복과 맞물려 작년 부진했던 석유화학과 자동차 등은 반등하고, 팬데믹 수혜 품목이었던 컴퓨터, 가전 등은 다소 둔화
- 수출 물량이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한 가운데, 작년 급락했던 수출 단가는 올해 들어 상승세로 반등하면서 수출 호조를 주도

〈그림 3〉 수출 단가 및 수출 물량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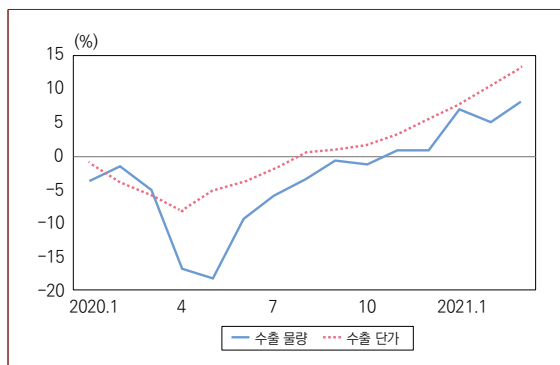
주: 수출단가지수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정.

- 수출 단가는 유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작년 말부터 상승 전환한 한편, 수출 물량은 주요국의 록다운 등으로 2분기 대폭 감소한 후 3분기부터 회복 지속

■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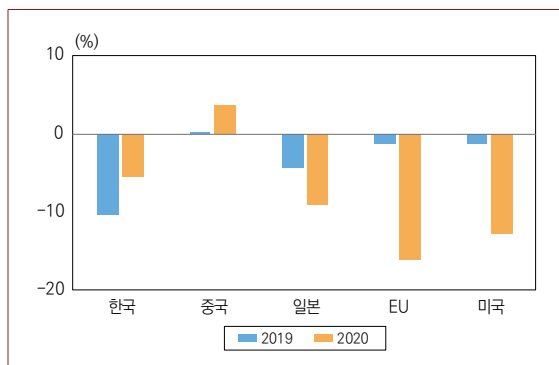
-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5.5%)은 세계 교역 감소폭(-9.6%)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3.7%)에 이어 두 번째로 양호한 실적
- 코로나19 팬데믹 타격이 컸던 미국, EU 등의 수출이 크게 부진한 반면, 팬데믹 타격이 제한적이었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수출이 선전

〈그림 4〉 세계 수출 물량 및 수출 단가 증감률



자료: CPB world trade monitor.

〈그림 5〉 주요국 수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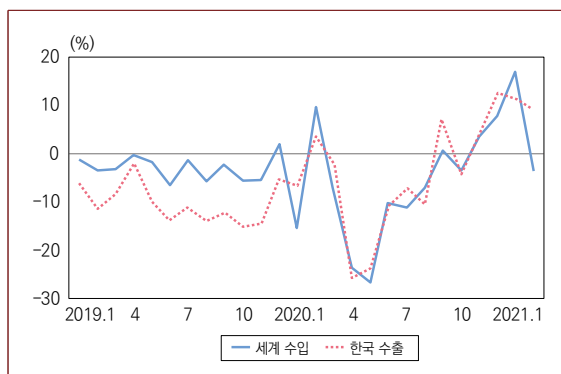
자료: WTO.

-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초기 확산세 억제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량 타격이 적었고, 팬데믹 수혜 업종인 IT 품목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

■ 호조 배경 1: 코로나19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에 따른 반등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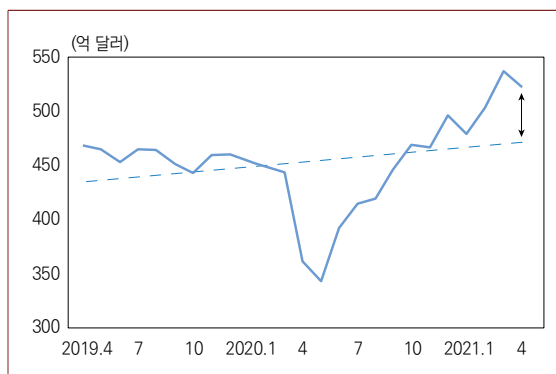
- 작년 세계 수입은 7.2%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수출은 5.5%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선전한 것으로 평가
 - 코로나 팬데믹 선언(2020년 3월) 전에는 세계 수입 증가율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여 우리나라 수출이 다소 부진했으나, 9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수출 반등폭이 세계 수입보다 큰 것으로 확인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감소폭이 작으며,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
- 최근 2개년 우리나라 수출 금액 추이는 작년 10월부터 기대보다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올 4월 기준 추세 추정치보다 초과 달성한 것으로 추정
 - 이는 작년 경기침체로 인한 반등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
- 예상보다 빠른 수출가격의 회복은 수출 물량의 대폭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세를 기록하는 데 일조

〈그림 6〉 세계 수입 및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추이 비교 〈그림 7〉 우리나라 수출금액 추이



자료: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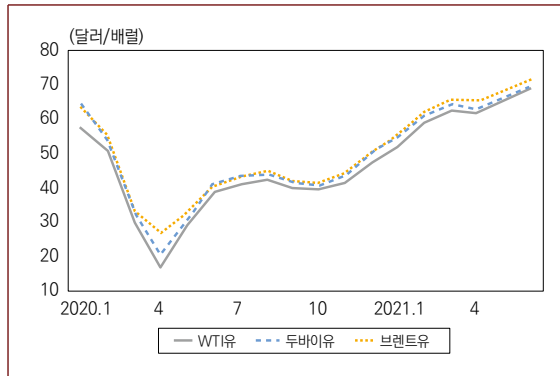
주: 각국 월별 수입 데이터의 합을 세계 수입으로 추정.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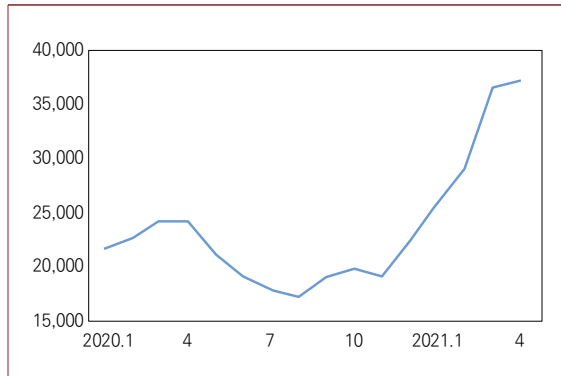
주: 상품수출 계절조정 데이터 이용.

〈그림 8〉 최근 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그림 9〉 최근 DXI 추이



자료: DRAM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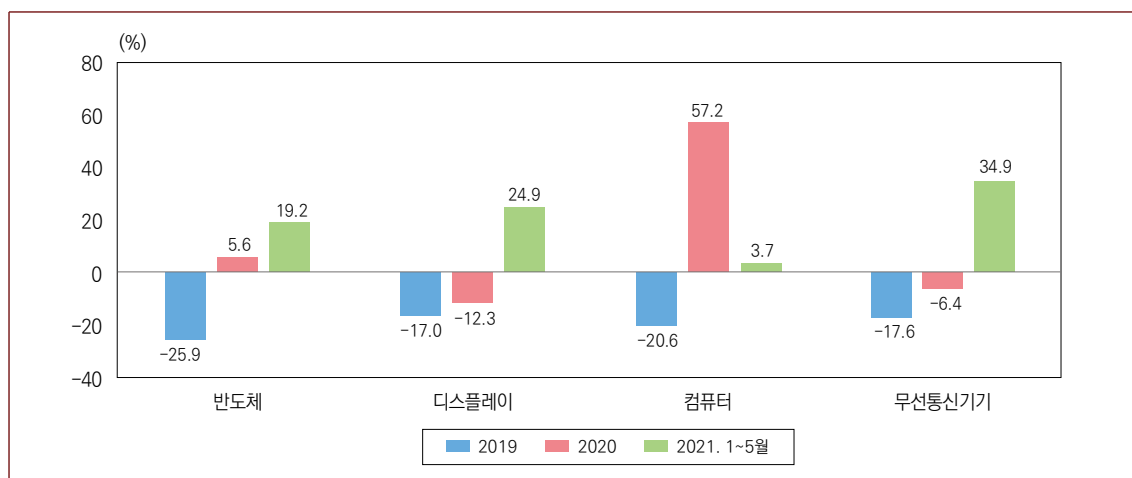
주: DXI는 주요 메모리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요 칩들의 가격 합을 평균내어 산출.

-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의 가격 상승, 신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가격 회복 등에 주로 기인
- 유가는 지난해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및 OPEC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제한적인 원유 증산 계획 발표 후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는 대외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이 지속

□ 호조 배경 2: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untact) 경제 활성화

- 비대면 경제 가속화는 IT 품목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영향
 - 팬데믹에 의한 원격 수업·회의·진료, 재택근무 확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온라인화 등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 IT산업의 수출을 견인
- 반도체 수출은 작년 992억 달러로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및 서버 수요 급증으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역대 1위는 2018년 1,267억 달러)
 -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
- 디스플레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공급 과잉이었으나,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글로벌 TV 및 IT 기기 수요 폭증으로 OLED 중심으로 수출 확대

〈그림 10〉 IT산업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5월 실적은 잠정치.

- OLED 수출 증가율은 2019년 -0.5%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수요 폭증으로 작년 4분기 기준 수출 증가율은 37.9%로 디스플레이 수출의 69%를 차지

■ 호조 배경 3: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로 인한 반사적 이익

- 최근 기후변화 방지와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 제고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은 반사적 이익 발생
-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작년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6%로 전년 10.8%보다 증가
 - 작년 코로나19 여파에도 친환경차 수출량은 증가하였고, 올 1분기도 작년 동 기간 수출 실적을 상회하며 친환경차 수출량은 증가세 지속

〈표 2〉 친환경차 수출 추이

단위: 천 대,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4월
친환경차 (비중)	259 (10.8)	271 (14.6)	58 (12.3)	69 (20.0)	70 (13.9)	78 (13.9)	87 (15.9)	119 (16.5)
전기차	76	121	20	35	32	34	28	40
전체	2,401	1,887	475	346	508	558	546	721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 친환경차를 HEV(하이브리드), EV(전기), PHEV(플러그인), FCEV(수소전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표 3〉 이중연료(Dual Fuel) 선박 건조(예정) 추이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중연료 선박	(만CGT)	340 (43.7)	276 (28.9)	317 (35.9)	541 (52.7)	400 (49.4)	654 (70.8)
전통연료 선박		437	682	566	485	409	269
합계		777	958	883	1,026	809	924
이중연료 선박	(척)	42 (21.3)	39 (16.6)	43 (20.0)	82 (36.4)	77 (38.1)	119 (59.8)
전통연료 선박		155	196	172	143	125	80
합계		197	235	215	225	202	199

자료: Clarksons WFR(2021. 6. 8 기준).

- 올 1~4월 대EU 전기차 수출 비중이 77.1%²⁾로 이는 유럽의 전기차 및 고연비차 구매보조금 확대 등 친환경 정책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³⁾
- 선박 역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Dual Fuel)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
 - 국제해사기구(IMO)의 단계별로 강화되는 환경 규정⁴⁾에 따라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여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이에 초대형 유조선(VLCC), 컨테이너선 등 이중연료 엔진 장착 선박의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NG선 수출 증가
 -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이중연료 선박 건조량은 전체 선박 중 52.7%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 선박 수출이 증가하는 데 일조

■ 호조 배경 4: 신(新)수출성장동력 주요 품목의 성장 가시화

- 신수출성장동력 주요 품목의 수출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확인
 - 작년 신성장 품목 수출은 12.4% 증가하여 전체 수출 5.5% 감소와 상반되는 성과를 보여 대외여건이 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수출 경쟁력을 증명

2)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1. 5), “2021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 p. 8 참조.

3)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 및 전기차 인프라 구축 예산 확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음.

4)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위하여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 2008년 대비 70% 감축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50% 저감하는 GHG strategy를 발표.

〈표 4〉 신수출성장동력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포인트, %

	코로나19 발생 전		코로나19 발생 후			
	2019		2020		2021. 1~5월	
	기여도 ⁵⁾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바이오헬스	1.1	(6.0)	9.5	(52.4)	7.1	(31.1)
이차전지	0.4	(2.6)	0.2	(1.3)	2.9	(21.1)
화장품	0.5	(4.3)	2.0	(15.6)	4.8	(35.9)
농수산물	0.7	(4.3)	0.8	(4.4)	2.4	(14.7)
플라스틱제품	0.9	(4.5)	0.01	(0.03)	3.4	(18.1)
정밀화학원료	-1.1	(-6.7)	-0.1	(-0.4)	5.3	(38.6)
로봇	-0.1	(-8.8)	-0.04	(-3.5)	0.5	(41.0)
신수출성장동력 품목의 수출 증가율	2.4		12.4		26.4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율	-12.8		-9.2		23.9	
총수출 증가율	-10.4		-5.5		23.4	

자료: 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주: 1) 신수출성장동력 품목의 분류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참고.

2) 5월 실적은 잠정치.

- 아직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주력 품목이 수출 부진을 겪는 동안에도 신성장 품목의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하며 향후 우리나라 수출의 경쟁력 강화에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신수출성장동력 품목 내 수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바이오헬스는 작년 진단키트 수출 호조로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10대 수출 품목에 첫 진입하는 등 의약품, 의료기기 모두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

■ 올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올해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

5) 신성장품목 수출 증가율을 업종별 기여도의 합으로 분해하면,

$$\frac{X_t - X_{t-1}}{X_{t-1}} = \sum_i \left[\frac{(x_t^i - x_{t-1}^i)}{x_{t-1}^i} \times \frac{x_{t-1}^i}{X_{t-1}} \right]$$

이며, X_t =t기 총수출, x_t^i =t기 i품목의 수출을 의미. 여기서는 X_t =t기 신수출성장 품목의 총수출을 의미.

-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지속, 코로나19 백신 보급 개시 등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요 증가로 제한적 상승이 예상되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영향 기대
- 다만, 지난해 말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기저효과, 비대면 수혜 품목의 수요 둔화, 유럽과 신흥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거시정책 기조 변화 등의 불확실성 요인은 수출 증가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수출 호조 배경에는 코로나19의 기저효과라는 일시적 요인과 산업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혼재
 - 우리나라 수출 호조는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과 세계 경기 회복 추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는 우리나라가 IT 및 친환경 경차와 배터리, LNG선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선전하며 수출 호조를 지속하기 유리한 조건

■ 수출 호조를 지속하기 위한 대내외적 수출 정책 수립 노력이 필요

- 최근 수출 호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편될 세계 교역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출 품목의 구조 전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주력 수출 품목 내에서도 OLED, 시스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변화
- 특히 팬데믹 이후 가속화될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환경 규제 강화에 맞추어 수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
 - IT,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기술 집약형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수출 품목 다변화 시도 및 신(新)산업 적극 육성
 - 친환경차, LNG선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 필요
-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 무역 강화 등 불리한 교역 환경 속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세계 교역 및 투자 환경 위축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등 수출 장려책 확대 필요
- 미·중 무역분쟁 심화 가능성도 있어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접근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 필요

한정민 동향분석실 | 연구원 | jmhan@kiet.re.kr | 044-287-3291

